

# 조선후기 拳法の 군사무예 정착에 대한 문화사적 고찰

최형국\*

1. 머리말
2. 拳法の 문화적 보급 과정과 군사훈련 정착
3. 拳法の 실제와 武藝史的 특성
4. 맺음말

## 1. 머리말

조선은 임진왜란을 거치면서 군사상 가장 많은 변화를 겪었다. 개전 초기의 적절한 전술적 대응 부족으로 인해 불과 20여일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도성은 함락되었고, 국왕은 수도를 버리고 북으로 몽진을 떠나야 했다. 이는 변화하는 전장의 상황을 빠르게 인지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당시 일본군은 조총이라는 개인용 화약무기와 함께 戰國時代를 거치면서 양성된 창검을 비롯한 단병무예에 뛰어난 군사들을

\* 중앙대 강사(한국사)/수원시립공연단 무예24기시범단 상임연출

혼용하는 새로운 형태의 전술체제를 고안하여 실전에 활용한 상태였다.<sup>1)</sup> 조선군은 기병전술 위주의 五衛체제에서 長短兵을 적절하게 구사하는 일본군의 전술전개에 극심한 혼란을 겪었다.<sup>2)</sup> 西厓 柳成龍은 일본군의 장기로 조총·用劍·돌격 등 세 가지를 주요 전력으로 인식하며 조총과 더불어 단병접전 전투능력에 대해 여러 번 언급하기도 하였다.

임란 발발 이듬해인 1593년에 새롭게 창설된 訓練都監의 기본 편제가 砲手·射手·殺手체제의 삼수병방식으로 구성된 핵심이유는 조총병과 단병접전용 창검군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대책 중 하나였다. 조총의 경우는 전투시 노획한 것을 활용하다가 金忠善(沙阿可)을 비롯한 降倭의 도움을 통해 제작 기술을 습득하여 훈련도감을 창설할 때에는 군영 안에서 조총을 자체 제작하여 전투에 활용하였다.<sup>3)</sup> 단병접전에 활용한 왜검법 역시 항왜를 적극 활용하고 兇童隊를 비롯한 특수 직역을 만들어 보급에 힘을 썼다.<sup>4)</sup>

그러나 조총의 경우는 焰硝의 제조 및 제작 기술의 보안을 제외하고는 비교적 쉽게 조선군에게 보급된 반면 왜검법을 비롯한 살수의 전투기술은 빠르게 보급시키기 어려웠다. 이는 조총 발사훈련의 경우는 단기간에 걸쳐 집중 훈련을 할 경우 전투에 바로 활용할 정도로 실력을 높일 수 있었지만,<sup>5)</sup> 도검이나 창을 훈련하는 단병접전술의 경우는 훈련과정도 길었을 뿐만 아니라 실력을 가늠할 수 있는 시험방법이

1) 노영구, 『朝鮮後期 兵書와 戰法の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2002, 46-47쪽.

2) 최형국, 『朝鮮後期 騎兵의 馬上武藝 研究』, 중앙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2011, 23-29쪽.

3) 한문중, 「임진왜란시의 降倭將 金忠善과 『慕夏堂文集』」, 『한일관계사연구』 24권, 한일관계사학회, 2006. 71-80쪽; 『宣祖實錄』 卷44, 宣祖 26年 11月 壬戌條; 『西厓集』 卷6, 書狀, 「再乞鍊兵且倣浙江器械多造火砲諸具以備後用狀」

4) 최형국, 「朝鮮後期 倭劍交戰 변화 연구」, 『역사민속』 25호, 한국역사민속학회, 2007, 93-98쪽.

5) 『宣祖實錄』 卷48, 宣祖 27年 2月 己巳條.

모호했기 때문에 군사들 내부에서도 동요가 잦았기 때문이다.<sup>6)</sup>

이러한 단병접전 기술에 대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우선 원군으로 조선에 건너온 明軍중 단병접전 능력이 뛰어난 南兵의 전투방식을 채용하였다. 남병은 왜구와의 실전 전투경험이 풍부하여 遼東都司 소속의 副總兵 祖承誨이 이끈 1차 원군에 비해 효과적으로 임란에 대처할 수 있었다.<sup>7)</sup> 이때 핵심적으로 보급된 단병무예는 訓局郎 韓僑를 중심으로 간행된 『武藝諸譜』에 수록된 棍, 籐牌, 狼筈, 長槍, 銃鈹, 長刀 등 모두 여섯 가지의 무기 활용법이었다.<sup>8)</sup> 그러나 임란이 끝나고 나서 군사들의 무예에 대한 보다 정밀한 훈련을 위해서는 무기를 잡기 전에 익혀야 하는 맨손무예인 권법의 훈련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었다.

지금까지 조선후기 맨손무예인 拳法에 대한 연구는 주로 체육학 영역에서 태권도와와의 유사성 혹은 고대 手搏이나 角抵와 같은 전통적인

- 
- 6) 조총의 경우는 일정한 거리에 세워둔 표적에 시험발사를 하여 적중의 여부를 가리는 것으로 훈련의 성과를 확인할 수 있었지만, 단병접전술의 경우는 실체가 전투가 아닌 이상 적과의 교전을 가상으로 상정하여 실상의 유무를 확인하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특히 대부분 기본적으로 활을 다루는 射手 중심의 보병전술체제에서 군사들 스스로가 단병접전술을 익혀야 하는 의미성과 효과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宣祖實錄』 卷 62, 宣祖 28年 4月 辛未條.)
- 7) 임란 발발 후 명군의 1차 원군은 조승훈이 이끈 기병위주의 북병이었던 반면 2차 원군은 李如松이 이끈 남병은 보병위주였다. 평양성 탈환전투시 1차는 기병위주의 전술로 패배하였고, 이후 2차 전투에서는 남병의 보병 중심 전술로 승리할 수 있었다. 이를 계기로 조선에서도 남병의 일본군에 대한 전투능력을 확인할 수 있었다.
- 8) 壬辰倭亂 당시 日本軍의 短兵接戰術에 대항하기 위하여 명나라에서 입수한 『紀效新書』의 여섯 가지 기예를 수록한 『武藝諸譜』와 관련한 연구는 다음의 논문을 참고하였다. 朴起東, 『朝鮮後期 武藝史 研究』,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4; 盧永九, 「宣祖代 紀效新書의 보급과 陣法 논의」, 『軍史』 34호, 군사편찬연구소, 1998; \_\_\_\_\_, 「壬辰倭亂 이후 戰法の 추이와 武藝書의 간행」, 『한국문화』 27집, 2001; 沈勝求, 「壬辰倭亂 中 武藝書의 편찬과 의미」, 『한국체육대학교 논문집』 26집, 한국체육대학교, 2003; \_\_\_\_\_, 「한국 무예사에서 본 『武藝諸譜』」, 『한국무예의 역사·문화적 조명』, 국립민속박물관, 2004; 정혜은, 「임진왜란기 조선이 접한 단병기와 『무예제보』의 편찬」, 『軍史』 51호, 2004; 최형국, 「조선후기 倭劍 交戰 변화연구」, 『역사민속학』 25호, 역사민속학회, 2007. ; \_\_\_\_\_, 「조선후기 陣法 鴛鴦陣의 군사무예 특성」, 『軍史』 78호, 군사편찬연구소, 2011. 참조.

몸문화 흐름 속에서 권법의 변화와 연관을 중심으로 연구되어 왔다.<sup>9)</sup> 또한 1790년에 편찬된 『武藝圖譜通志』의 수록된 무예24기중 맨손무예인 권법이 들어 있어 이를 중심으로 태권도와 연관된 맨손무예 자세의 특성 및 실기적 흐름을 분석하는 연구가 주를 이뤘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의 흐름은 조선후기 권법의 특성이 전투에 활용하기 위한 군사훈련을 중심으로 연마된 전투기술의 연장선에서 이해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래된 연원을 찾기 위하여 삼국시대나 혹은 그 이전의 무예까지 무리한 연관을 지어 당대 무예의 변화와 흐름을 제대로 짚어 낼 수 없었다. 무예 또한 몸 문화의 일부로 유구한 전통 문화임에는 분명하지만, 임란을 거치고 조선에 보급된 권법의 경우는 상당히 이질적인 모습이 담겨 있기에 무리한 연원 거슬러 올리기 방식이나 단순 문자적 비교로는 그 한계가 명확하게 드러날 수밖에 없다.

또한 체육학 영역에서의 관련 논문들은 지나치게 태권도와의 연관성을 도출해내기 위하여 무리한 비교연구를 진행하기도 하였다. 현재 태권도가 한국을 대표하는 무예이고, 세계 속에서 가장 활발하게 보급된 무예이지만, 올바른 역사적 이해가 없다면 발전 가능성이 좁아질 수밖에 없다. 태권도의 경우는 그 형성과정에서 이미 일본의 가라테에서 영향을 많이 받고 이후 근대 스포츠로 발전하면서 토착화된 무예지만, 무조건 한국의 전통무예라는 점만을 강조하기 위하여 지나치게 외부영향에 대해 금기시하는 분위기로 연구풍토가 조성되어 있는 실정이다.<sup>10)</sup>

9) 이러한 조선시대 권법에 대한 선행연구는 다음과 같다. 나영일, 「조선시대의 手搏과 拳法에 대하여」, 『무도연구소지』 8, 용인대 무도연구소, 1997; 심승구, 「韓國 武藝의 歷史와 特性 : 徒手武藝를 中心으로」, 『군사』 43호,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01; 김산, 『壬辰倭亂 이후 朝鮮의 拳法에 대한 研究』, 전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2; 최복규, 「《무예도보통지》 권법에 관한 연구: 《기효신서》와의 관련성을 중심으로」, 『한국체육학회지』 41, 2002; 김현일, 『《무예도보통지》에 나타난 권법에 관한 고찰』, 용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5; 광낙현, 임태희, 「전통무예에서의 권법 분석」, 『東洋古典研究』 54, 동양고전학회, 2014. 등이 대표적이다.

10) 태권도 형성의 기원과 변화 중 가라테와 연관성에 대한 논의는 양진방, 『해방 이

따라서 본 연구는 이러한 선행연구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조선후기 拳法の 도입과정과 군영내 훈련 변화를 문화사적 관점에서 집중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sup>11)</sup> 특히 군사무예에서 권법수련에 대한 의미와 변화양상을 분석하여 권법이 갖는 전투적 속성과 무기 수련과의 연관성을 군사무예사적 입장에서 확인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임란 이후 최초로 권법에 대한 기록을 모아놓은 『武藝諸譜續集』과 『武藝圖譜通志』 등 당대 맨손무예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 여러 자세 비교를 통하여 변화의 흐름을 분석하고 당대 군사무예사적 특성을 밝히고자 한다.

## 2. 拳法の 문화적 보급 과정과 군사훈련 정착

임란이후 조선에 보급된 맨손무예인 拳法이 보급되기 이전에 이미 조선에서는 맨손무예인 手搏이 성행하고 있었다. 조선전기의 수박은 주로 궁궐의 시위 군사를 뽑는 특수시험이나<sup>12)</sup> 手搏戲라고 하여 군사들이 맨몸으로 붙어 싸우는 모습을 관람하기 위하여 연희에서 주로 활용되곤 하였다.<sup>13)</sup>

---

후 한국 태권도의 발전과정과 그 역사적 의의』, 서울대학교 석사논문, 1985.에서 처음으로 지적되었으며, 이후 조금씩 관련 연구가 이어지고는 있다. 그러나 민족과 전통이라는 입장에서 태권도의 전통성을 지키기 위해 상당부분 미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11) 무예에 대한 역사문화사적 고찰은 임동규, 『武藝史 연구』, 학민사, 1991이 가장 큰 기여를 하였다. 임동규는 무예를 단순한 전투기술로써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인류의 역사와 함께 탄생하여 발전한 문화의 일부라 설명하였다. 특히 조선후기 무예서인 『武藝圖譜通志』에 대한 연구를 역사 및 실기와 함께 진행하여 『한국의 전통무예』, 『실연, 완역 무예도보통지』를 출판하는 등 한국 전통무예 발전의 실기 및 이론에 관한 토대를 마련하는데 큰 기여를 하였다.

12) 『太宗實錄』卷19, 太宗 10年 1月 戊子條; 『太宗實錄』卷21, 太宗 11年 6月 己亥條.

13) 『太宗實錄』卷32, 太宗 16年 7月 庚寅條; 『太宗實錄』卷34, 太宗 17年 7月 甲寅

특히 조선 개국 초에 반포된 국가의 공적인 법전인 『經濟六典』에 수박을 통한 맨손 겨루기 시험을 공식적인 무관 선발 방안으로 확립하였다. 다음의 사료로 확인할 수 있다.

(가) 삼가 六典을 상고하건대, 이르기를, ‘갑옷을 입고 창을 잡고 능히 3백 步를 달리는 자가 상등이고, 2백 보를 달리는 자가 중등이며, 또 手搏의 능력이 능히 네 사람을 이기는 자가 상등이고, 세 사람을 이기는 자가 중등이 된다.’ 하였다.<sup>14)</sup>

위의 사료에 등장하는 수박은 고려시대부터 군사들 사이에서 성행되었던 맨손무예인 수박으로 그때까지는 私兵혁파가 이뤄지지 않은 시점에서 군사들의 실력을 효과적으로 검증하기 위한 방안이었다. 특히 고려시대의 경우는 공식적으로 文科시험은 존재했지만, 무관을 뽑는 무과시험이 없어 수박의 능력은 곧 당시 권력층 私兵의 무관으로 진출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였기에 맨손무예인 수박이 폭넓게 보급될 수 있었다.<sup>15)</sup>

그러나 太宗代를 거치면서 사병혁파가 이뤄지고 모든 군사들이 국가에 귀속된 이후 이들을 이끄는 무관들을 뽑는 공식적인 시험인 무과시험에서 창검술과 맨손무예 종목이 제외되면서 수박은 군사무예에서 조금씩 영향력을 잃어 갔다.<sup>16)</sup> 이는 무과시험에서 무예실기뿐만 아니라 유학적 지식을 겸비시키기 위해 이론시험이 추가되어 실기는

條; 『世宗實錄』 卷4, 世宗 1年 7月 甲辰條; 『世宗實錄』 卷12, 世宗 3年 5月 己卯條; 『世宗實錄』 卷51, 世宗 13年 3月 壬辰條; 『端宗實錄』 卷14, 端宗 3年 6月 癸巳條; 『端宗實錄』 卷14, 端宗 3年 6月 癸巳條;

- 14) 『世宗實錄』 卷102, 世宗 25年 11月 癸丑條, “謹考六典云 帶甲執槍 能走三百步者爲上等 二百步者爲中等 又爲手搏技能勝四人者爲上等 三人者爲中等.”
- 15) 고려 毅宗때 무장으로 확고한 지위를 확보했던 李義旼의 경우도 출신은 천한 신분이었지만, 수박의 능력이 뛰어난 무장으로 승승장구할 수 있었다.(『高麗史』 卷128, 列傳41, 李義旼條. “義珉 善手搏 毅宗愛之以除正 遷別將.”)
- 16) 이러한 조선전기 수박의 쇠퇴 영향과 흐름은 심승구, 「韓國 武藝의 歷史와 特性 : 徒手武藝를 中心으로」, 『군사』 43호,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01.를 참고한다.

활쏘기와 騎兵을 위한 馬上武藝로 집중되었기 때문이다.<sup>17)</sup> 이러한 이유로 임란시에는 槍과 劍을 비롯한 보병용 무예는 그 무기만 존재하고 수련하는 방법이 없었고 오로지 弓矢만 보병의 주력무기로 활용되고 있는 실정이었다. 다음의 사료는 이러한 무예변화의 흐름을 잘 보여준다.

(나) 우리나라는 해외에 치우쳐 있어 예로부터 전해오는 것은 弓矢의 한 기에만 있었고 검과 창에 대해서는 그 무기만 있고 원래 習用하는 방법이 없었다. 馬上槍 하나만이 과거시험의 試場에서 사용되었지만 그 법도 상세히 갖춰지지 않았으므로 검과 창이 버려진 무기가 된 것이 오래되었다. 그러므로 왜적과 대진할 적에 왜적이 갑자기 죽음을 무릅쓰고 돌진하면 우리 군사는 비록 창을 들고 칼을 차고 있더라도 검을 칼집에서 뺄 겨를이 없었고 창도 창날을 부딪칠 수 없어 속수무책으로 흉악한 칼날에 모두 꺾였으니, 이는 모두 창과 검에 대한 수련법이 전해지 않았기 때문이다.<sup>18)</sup>

위의 사료에서처럼 창검을 비롯한 보병의 단병접전용 무예 수련법이 失傳되면서 임진왜란시 심각한 전술적 혼란을 겪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반면 무과시험의 핵심과목으로 자리잡은 木箭, 鐵箭, 片箭 등 다양한 활쏘기와 五衛체제의 근간을 이루는 기병의 마상무예 일종인 騎射, 騎槍, 擊球 등이 군사무예의 핵심으로 자리 잡을 수 있었다.

조선전기 핵심전술체제가 오위전술체제로 원사무기인 弓矢와 기습돌격용 기병으로 구성되었기에 단병접전에 활용 가능한 수박은 군사무예로서 효용성을 잃는 현실적인 계기가 되었다. 반면 민간에서 수박은 맨손격투술로 여전히 넓게 수련되었다. 예를 들면, 潭陽지역

17) 최형국, 「조선시대 騎射 시험방식의 변화와 그 실제」, 『중앙사론』 24집, 중앙사학연구소, 2006, 33-45쪽.

18) 『武藝諸譜』, 「武藝交戰法」 “惟我國家偏處海外 從古所傳 只有弓矢一技 至於劍槍則徒有其器 顧無習用之法 馬上一槍雖用於試場 而其法亦未詳備 故劍槍之爲棄器久矣 故與倭對陣 倭輒死突進 我軍雖有持槍而帶劍者 劍不暇出鞘 槍不得交鋒 束手而盡 卽於兇刃皆由於習法之不傳故也.”

에서는 鄉吏와 官奴들까지 나서서 “나라에서 手搏으로써 試才한다는 말을 듣고는 다투어 서로 모여서 手搏戲를 하면서 몰래 勇士들을 뽑았다”<sup>19)</sup>고 할 정도로 격투실력을 가름하기 위해 수박이 활발하게 보급되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변경지역에서는 수박을 잘하는 자를 선발하여 良賤을 가리지 않고 지역 방위군에 편입시켰는가 하면,<sup>20)</sup> 지방에서는 수박이나 角力 등 맨손무예로 겨루다가 감정이 격해져 손으로 때려죽이거나 도끼나 낫과 같은 무기를 이용하여 살인사건이 발생하는 등 사회문제로 비화되기까지 하였다.<sup>21)</sup> 그리고 수박은 씨름과 함께 세시풍속의 한 종목으로 자리 잡기도 하였는데, 모내기를 마치고 일손이 조금 한가해진 白中날에 수박을 겨루며 화합의 장을 만들기도 하였다.<sup>22)</sup> 특히 군사들을 이끄는 장수의 기본 자질에 맨손격투 능력이 중요하게 언급될 정도로 수박은 장수 선발의 일정한 준거가 되기도 하였다.<sup>23)</sup>

그러나 앞서 언급했듯이, 수박이 군사무예로 정착되지 못하면서 기술의 체계화 및 공식화가 이뤄지지 못하였다. 군사훈련은 동일한 자세와 움직임으로 수 백 혹은 수 천명이 한꺼번에 수련해야 하기에 활쏘기와 마상무예의 경우는 일정한 체계화가 이뤄졌지만, 수박은 공식적인 군사 선발시험과 훈련에서 제외되어 기술의 정리와 체계화가 진행되지 못하였다. 특히 조선전기의 군사훈련의 경우 개인 기예보다는 진법 속에서 안정적으로 대오를 갖춘 전투방식을 지향했기 때문에 군사 개개인의 수박이나 창검 운용법 등 단병접전 기법은 쇠퇴할 수밖에 없었다.

19) 『世祖實錄』卷9, 世祖 3年 9月 丁丑條. “潭陽鄉吏官奴等 聞國家以手搏試才 爭相聚集爲手搏戲 陰揀勇士.”

20) 『世祖實錄』卷43, 世祖 13年 7月 丁丑條.

21) 『世宗實錄』卷50, 世宗 12年 閏12月 癸丑條; 『世祖實錄』卷33, 世祖 10年 5月 辛未條.

22) 『新增東國輿地勝覽』卷34, 礪由郡 由用條, “鵲旨在郡北十二里忠清道恩津縣界 每歲七月十五日 傍近兩道居民 聚爲手搏戲 以爭勝.”

23) 『成宗實錄』卷82, 成宗 8年 7月 丙子條.

조선군은 이러한 단병접전 무예의 퇴조 속에서 임진왜란을 맞이하였고, 일본군의 단병접전 기술과 개인 화약무기인 조총의 융합 戰法 속에서 전술적 혼란을 겪었다. 임란 당시 조선군의 단병접전 기법을 임시방편으로 구축하기 위하여 중국의 병서인 『紀效新書』를 차용하여 『武藝諸譜』라는 조선 최초의 단병무예서를 편찬 및 보급하기는 했지만, 전시라는 특수상황에서 활발하게 보급하기는 어려웠다.<sup>24)</sup> 특히 銃鈹나 狼筈과 같은 명군의 독특한 무기와 무예의 경우는 조선군이 이전에는 사용해 본적이 없는 새로운 무기였기에 군사들 스스로 비웃거나 거부감을 표하는 등 많은 한계가 드러났다.<sup>25)</sup>

이는 무예 또한 문화의 연장선에 존재하는 것이기에 낯선 문화에 대한 배타성과 두려움이 군사들 내부에 자리 잡았기 때문이다. 『武藝諸譜』의 내용을 보면 무예의 문화적 속성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다) 무릇 우리나라 사람은 음식을 먹을 때 손가락을 사용하지만 중국인은 젓가락을 사용하니 중국인으로 하여금 손가락을 사용하도록 하고 우리나라 사람으로 하여금 젓가락을 사용하도록 시험하면 각각 생소한 근심이 없지 않을 것이니 이는 익숙하고 익숙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손가락과 젓가락을 사용하는 것도 오히려 그러한데 하물며 검과 창을 사용함에 있어서는 어떻겠는가. 弓矢는 비록 우리나라의 長技지만 어찌 그 하나만을 익히고 다른 무예를 폐할 수 있겠는가.<sup>26)</sup>

위의 사료에서 보듯이 무예를 당대 음식문화 중 하나인 손가락과

24) 임란당시 조선에 임시방편으로 보급된 단병접전용 무기와 무예는 다음의 논문이 자세하다. 정해은, 「임진왜란기 조선이 접한 단병기와 『무예제보』의 편찬」, 『軍史』 51호, 2004; 최형국, 「朝鮮後期 倭劍交戰 변화 연구」, 『역사민속』 25호, 한국역사민속학회, 2007.

25) 『兵學指南演義』 序文.

26) 『武藝諸譜』, 「武藝交戰法」 “夫我國人則喫飯用匙 而中國人則乃以箸 試今中國以匙而我國以箸 則各不無生疎之患 由習與不習故也 匙箸之用尙然 況劍鎗乎 夫弓矢雖爲我國之長技 烏可習其一而廢諸技哉.”

젓가락을 사용하는 것과 연관지어 설명하고 있다. 비록 숟가락과 젓가락이 음식을 먹는데 사용하는 도구지만, 그 문화적 특성에 따라 각 나라에 따라 다르게 사용되고 있기에 이를 바꾸는 것에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통해 이미 조선시대에 무예를 하나의 문화의 일부로 이해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중국의 무예와 조선의 무예가 다르기에 그것을 전쟁이라는 상황 속에서 급하게 차용할 때 많은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음을 우려했던 것이다.

그런데 『武藝諸譜』의 여섯 가지 중국무예를 보급할 때에도 전장에서 빠르게 적용시키기 위해 바로 해당 무기를 연마하는 수련법을 택한 것이기에 기본이 되는 권법을 익힐 틈이 없어 무예전수의 이질감이 더욱 커졌던 것이다. 이후 임란이 끝나고 난 후에는 중국의 무예를 보다 현실적으로 보급하기 위하여 중국의 권법을 문화적으로 유통시키려는 정책을 추진하기도 하였다. 다음의 사료를 보면 이를 확인할 수 있다.

(라) 拳法은 용맹을 익히는 무예인데, 어린 아이들로 하여금 이를 배우게 한다면 마을의 아이들이 서로 본받아 연습하여 놀이로 삼을 터이니 뒷날 도움이 될 것이다. 이 두 가지 무예를 익힐 아동을 뽑아서 종전대로 李中軍에게 전습 받게 할 것을 훈련도감에 이르러 하였다. 인하여 『紀效新書』 가운데 곤방과 권법에 관한 두 그림에 표시를 하여 내리면서 이르기를, 이 법을 訓練都監에 보이라고 하였다.<sup>27)</sup>

위의 사료를 보면 권법을 勇猛을 익히는 무예로 생각하고, 어른이 된 후에 갑자기 익혀 문화적 충격을 경험하게 할 것이 아니라 아이들에게 익히게 하여 놀이로 정착되게 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또한 훈련도감의 兒童隊의 경우는 비록 軍役을 시작하는 만 15세 나이는 아니었지만, 倭劍이나 馬上才 등 고난이도 무예훈련을

27) 『宣祖實錄』卷124, 宣祖 33年 4月 丁亥條. “且拳法 乃習勇之藝 若使小兒學此 則閭巷兒童 轉相效則 習而爲戲 他日不爲無助 此兩藝 兒童抄出 依前傳習於李中軍事 言于訓練都監 仍以紀効新書中 木棍拳法兩圖 付標而下曰 此法示于訓練都監.”

집중적으로 했던 특수직역이라 보급이 원활했으리라 판단된다.<sup>28)</sup> 군영에서 아동대에게 권법 훈련을 시키면 그들이 자기 마을에 돌아가서 권법을 놀이처럼 보급하여 훗날 임란과 같은 전시가 발생할 경우 보다 효과적으로 단병집전을 익힐 수 있으리라 생각했던 것이다. 또한 이 과정에서 수박이나 택견과 같은 민간에서 수련된 무예에 권법의 내용이 상당부분 흘러들어 갔을 가능성도 높다.

특히 권법은 “初學入藝之門”이라고 하여, 다른 무기를 사용하는 무예를 익히기 전에 기본적으로 습득하여 손과 발 그리고 몸의 활용도를 극대화시키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기초 무예였다.<sup>29)</sup> 권법이 다른 병기술을 익히기 전에 기본적으로 익혀야 한다는 개념은 조선이 임란 당시 『紀效新書』를 분석하면서 여러 무예를 습득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인지된 것이다.<sup>30)</sup> 이 병서에는 구체적으로 “拳, 棍, 刀, 槍, 耙, 劍, 戟, 弓, 矢, 鉤, 鎌, 挨牌 등의 종류는 권법보다 먼저 시작된 것이 없으니, 몸과 손을 움직임에 있어서는 권법이 무예의 근원이 된다”<sup>31)</sup>고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임란 당시에는 우선 전장에서 직접 활용할 창검법을 비롯한 병기술 중심의 군사훈련을 진행했지만, 임란이 마무리 된 후에는 군사무예의 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권법을 적극적으로 보급하게 된다. 이런 이유로 『武藝諸譜』 간행 이후 군사무예의 보강차원에서 光海君 2년인 1610년에 『武藝諸譜翻譯續集』이 간행된 것이다. 이 병서에 실린 무예를 살펴보면 <표 1>과 같다.

28) 『宣祖實錄』卷64, 宣祖 28年 6月 壬戌條. ; 이러한 문화적 보급과정에서 민간에서 전승되던 手搏이나 택견에 권법의 흐름이 일정정도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높다.

29) 『武藝圖譜通志』拳法條, “拳法似無預于大戰之技 然活動手足慣勤肢體 爲初學入藝之門”.

30) 권법 이외에도 ‘走力’이라 하여 달리기 훈련도 지속적으로 진행했는데, 이때에는 훈련의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양 손에 모래 50근을 들고 훈련하기도 하였다. (『文宗實錄』卷3, 文宗 卽位年 8月 戊寅條.)

31) 『紀效新書』手足篇, 拳法解.

〈표 1〉 『武藝諸譜翻譯續集』에 수록된 武藝와 그 특징

종류	특징	武藝의 특징	비고
拳法		보병들이 무기를 들지 않고 맨손으로 익히는 무예로 다른 병장기를 익히기 전에 수족을 원활하게 사용하기 위해 배우는 것	-
靑龍偃月刀		날 길이 2척, 자루길이 4척의 자루가 긴 칼로 크게 휘둘러 적을 베는 기법이 많은 무예	-
夾刀棍		전장길이 7척의 봉 끝에 5촌길이의 아주 짧은 칼을 달아 주로 적을 때리는 기법이 많은 무예	鈎槍圖 附錄
倭劍		두 사람이 마주서서 외날 칼을 가지고 공격과 방어를 펼치는 교전형 무예	新書倭劍圖, 日本國圖
* 附		日本考, 倭船, 寇術, 倭刀, 切意, 跋文	*附: 책 후반부의 부록

『武藝諸譜翻譯續集』에 실린 무예들은 기본적으로 이전 무예서의 속집형태였기에 주로 일본군의 전술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기예들로 구성되었다. 특히 청룡언월도나 협도곤 및 구창 등은 적 기병에게도 활용 가능한 무예였기에 당시 준동하던 女眞을 비롯한 북방세력에 대한 군사적 준비차원에서 함께 이뤄진 것이다.<sup>32)</sup>

이 중 권법은 『紀效新書』에 수록된 날개형태의 무예 자세들을 한꺼번에 수련할 수 있도록 연결 지어 소위 套路 혹은 形 방식으로 정리하였다. 이렇게 자세를 연결하는 방식은 단순한 자세의 연결이 아니라 각각의 자세의 의미를 살리면서 다음 자세를 위한 안정적인 身法을 가능케 하여 가상의 상대와 상대의 움직임에 따라 공격과 방어를 만들 수 있는 일종의 모의 전투 연습 및 지구력 강화를 위해 만들어진 것이다.<sup>33)</sup> 이 과정에서 형과 형 사이의 빈 공간의 경우는 어쩔 수 없이 조선군의 시각으로 재구성해야 했기에 권법의 흐름이 상당부분 조선화되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武藝諸譜翻譯續集』의 발문을 보면 당시 권법을 정리한 이유에 대해 “각 기예를 평가 할 때에 근거할만한 譜가 없어 오래 시간이 지나면

32) 최형국, 「17세기 대북방 전쟁과 조선군의 전술 변화-深河戰鬪를 중심으로」, 『군사연구』 133집, 육군군사연구소, 2012, 111-114쪽.

33) 최복규, 「《무예도보통지》 권법에 관한 연구: 《기효신서》와의 관련성을 중심으로」, 『한국체육학회지』 41, 2002, 36-37쪽.

반드시 그 전할 때에 그 진수를 잃어버릴 것이다.”<sup>34)</sup>라고 하여 무예의 본질인 실전 전투력 강화를 위하여 정리한 것임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무예를 연결된 형태로 수련할 경우 자칫 ‘花法’이라 하여 실전적인 움직임 보다는 화려한 자세의 연결로 흘러버릴 가능성이 컸기 때문에 권법의 실전성 확보를 위하여 진행한 것이다. 임란 당시 중국의 다양한 병기무예를 조선군에 보급할 때에도 花法과 正法の 문제는 끊임없이 제기된 상태였다.<sup>35)</sup>

이러한 권법에 대한 실전적 이해는 임란 이후 조선에서도 상당히 보편화된 상황이었다. 다음의 사료를 통해 이를 확인할 수 있다.

(마) 이시백이 아뢰기를, “근래 보니 拳法으로 손과 발을 운용하는 것을 익히고 있는데, 이는 실로 군졸들을 단련시키는 妙法입니다” 라고 하니, 상이 이르기를, “劍을 운용하는 것과 차이는 없을 것이다.” 하자, 이시백이 아뢰기를, “일찍이 권법을 잘하는 자를 본 적이 있는데, 옆에 있는 壯士가 몽둥이로 치려 했으나 끝내 빈틈을 찾지 못하였습니다. 손으로 치고 발로 차는 기술을 칼 같은 무기도 대적할 수 없었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비록 권법을 잘한다고 해도 어찌 칼 같은 무기를 당할 수 있겠는가.” 하자, 이시백이 아뢰기를, “그렇지 않습니다. 李汝松은 맨주먹으로 혼자서 적 수십 명을 대적하여 끝내 격퇴시켰다고 하며, 게다가 군졸들의 기운을 배양하는 데에 있어 참으로 兵家에서 절실하게 요구되는 것입니다. 李牧이 趙나라 장수였을 적에, 군졸들이 ‘돌을 던지며 멀리뛰기를 하고 있다.’라는 상황을 듣고는 ‘그 기운이 쓸 만하겠구나.’라고 하면서, 마침내 나가 싸워 대승을 거두었습니다. 오늘날 또한 이목이 기운을 배양한 것처럼 한다면, 병사를 잘 양성하였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였다.<sup>36)</sup>

34) 『武藝諸譜翻譯續集』跋文, “遼甲辰秋 臣盧稷 方爲提調 以爲各藝比較之際 其無譜可據者 久必傳失其眞已 付前擇譜之手 使之並譜其未譜之技 而適於其時.”

35) 『宣祖實錄』卷90, 宣祖 30年 7月 甲午條, “吳總兵處 其時卽令中軍趙誼 往請教師 則總兵卽發軍中善於武藝者六人 連日來教於都監 其言用槍之法 亦稍與 紀效新書有異 新書則以槍梢軟顛者爲上 而此則以軟顛爲非 大概以爲我國之軍 於諸技 頗已向熟 只是手法 足法 有些少未通處云 新書中 殺手之技 有花法 正法 未知前後唐人所教 孰正孰花耳.”

36) 『承政院日記』103冊 仁祖 26年 10月 13日 甲辰條, “時白曰 近見拳法 習於運用手

위의 사료는 당시 국왕이었던 仁祖와 병조판서 李時白이 나누는 것으로 비록 권법이 무기사용 없이 맨손으로 적과 겨루는 무예이지만, 군졸들의 용맹함을 높이는데 가장 좋은 효과적인 방법이라 언급하고 있다. 이러한 중국의 권법은 조선군에 보급되면서 각개의 자세가 아닌 연결된 형의 방식으로 재구성되면서 토착화된 형태로 발전하였다.

간략하게 권법이 수록된 병서편찬의 흐름을 보면, 임란이후 1604년에 『拳譜』라는 이름으로 권법만을 전문적으로 익힐 수 있는 병서가 간행되었고,<sup>37)</sup> 광해군대인 1610년에 『武藝諸譜翻譯續集』을 거쳐, 1759년(英祖 35년) 사도세자가 대리청정을 할 때 만들어진 『武藝新譜』에 교전의 방식까지 확대되었다. 이후 1790년(正祖 14년)에 편찬된 『武藝圖譜通志』의 무예24기 중 擊法의 일부로 권법이 재수록되면서 권법은 군사무예로 안정적인 지위를 확보할 수 있었다.<sup>38)</sup> 특히 正祖代 핵심군영으로 부각된 壯勇營의 경우 步軍의 무예시험인 大比較에 조총과 권법을 필수무예로 삼을 정도로 권법은 활발하게 보급되었다.<sup>39)</sup>

### 3. 拳法の 실제와 武藝史의 특성

武藝를 아주 간단하게 정의하면 맨손이나 창칼과 같은 무기를 활용

---

足 此實鍊卒之妙法也 上曰 無異於用劍矣 時白曰 曾見善於拳法者 壯士在傍 以杖欲擊 而終不能得其間 手歐足蹄 鋒刃不能敵矣 上曰 雖善於拳法 豈當鋒刃乎 時白曰 不然 李汝松以空拳 獨當數十賊 終能擊走云矣 且養其軍卒之氣 誠爲兵家之切要 李牧之爲趙將 聞軍卒投石 超距曰其氣可用 遂出戰大勝 今亦如李牧之養氣 則可謂善養兵也。”

37) 『宣祖實錄』 卷182, 宣祖 37年 12月 辛酉條.

38) 이러한 조선후기 무예서의 간행 형태 변화는 朴起東, 『朝鮮後期 武藝史 研究』,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4.를 참고한다.

39) 『壯勇營大節目』 卷1, 試射 大比較. “一 大比較時規矩 …(中略)… 步軍則鳥銃三放技藝 一次 拳法 一次試取計劃.”

하여 자신을 방어하고 상대와 맞서는 기술의 총체를 말한다. 따라서 무예의 핵심은 창칼과 같은 무기를 안정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몸통과 사지를 자유롭게 운용할 수 있도록 수련하는 것에 있다. 순차적으로 살펴보면, 몸통의 기둥이라고 할 수 있는 척추의 바른 사용법에 대한 身法과 손과 팔을 단련하는 手法, 그리고 발과 다리를 안정적으로 활용하는 腳法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sup>40)</sup> 여기에 수법을 좀 더 세분화하여 적을 공격하는 주먹질로 발전시킨 것이 拳法이며, 다리의 경우는 足法으로 발전하게 되는 것이다.<sup>41)</sup>

이런 이유로 전통시대에도 무예를 수련하는 기본 순서에 대하여 ‘身步手劍’이라는 경구로 그것을 설명하기도 하였다.<sup>42)</sup> 먼저 ‘身’은 자신의 몸과 상대의 몸을 말하는 것이다. 자기 ‘몸’의 한계가 어느 정도이며, 그 ‘몸’에서 분출시킬 수 있는 힘의 역량이 어느 정도인지 스스로 고민하고 키워나가는 것이다. 그리고 그 자신의 ‘몸’을 통하여 상대의 ‘몸’을 이해할 기본 개념을 만드는 것이다.<sup>43)</sup>

둘째, ‘步’ 즉, 걸음걸이다. 자신의 몸을 이해한 후에는 그 몸을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도록 두 다리를 사용하는 훈련을 하는 것이다. 걸음은 단순히 다리만 움직이는 것이 아니다. 두 다리의 움직임을 통하여

40) 병서에서 상대를 대적하는 방법을 배우는 기초과정을 身法, 腰法, 手法, 足法으로 구분하여 설명하기도 하였다.(『武藝圖譜通志』技藝質疑, “答曰 此技必 身法 腰法 手法 足法.”)

41) 이런 방식으로 무예를 구분하면 크게 맨손무예와 병기무예로 구분되고, 맨손무예는 주요 쓰임에 따라 拳法과 足法으로 구분되고, 상대와의 거리와 제압방식에 따라 타격기와 유술기로 구분할 수 있다. 병기무예 역시 거리에 따라 활이나 초총과 같은 遠射武器와 창검과 같은 近接武器 체계로 구분할 수 있다.

42) ‘身步手劍’의 구절은 『武藝圖譜通志』銳刀譜의 腰擊勢에 등장한다. 다음은 요격세의 내용이다. “腰擊勢者即腰擊也 法能橫衝中殺身步手劍疾若迅雷 此一擊者劍中之首擊也 右腳右首斬蛇勢 向前進步逆鱗 看法.”

43) 이러한 군사들의 身法에 대한 이해를 통해 각각의 무기에 맞는 選兵法이 이뤄지기도 하였다. 예를 들면, 방패를 사용하는 군사는 일어나고 엎드리는 것을 빠르게 할 수 있는 유연한 사람이야 하고, 낭선은 무거워서 다루기 힘들기 때문에 힘이 센 사람을 선발하여야만 하고, 당파는 장을 막고 적을 죽이므로 반드시 용맹과 위엄이 있는 자를 선발하였다.(『兵學指南演義』營陣正設 2卷, 選兵)

몸통이 안정되게 유지할 수 있도록 신체의 조화를 찾아 나가는 것이다. 어린 아이들이 걸음마를 배우면서 수없이 넘어지는 이유 또한 그 조화를 찾아가는 과정인 것이다. 거기에서 핵심은 척추를 바르게 세워 몸의 중심을 잡아가는 것에 있다. 몸이 바르게 세워지지 않으면 몇 걸음을 걷지 못하고 중심이 무너지게 된다. 이런 기본적인 보법 수련을 통해 이후에는 빠르게 달려도 넘어지지 않는 중심이동법을 익히게 된다.<sup>44)</sup>

셋째, ‘手’는 손과 팔의 사용이다. 상대와 맞서기 위해서 가장 먼저 익혀야 하는 것이 손의 활용이다. 일반적인 경우라면 서로 일정한 거리에 서서 주먹과 주먹을 견주는 것이 공방의 시작을 의미한다. 그리하여 상대의 주먹을 방어하기 위하여 팔로 막거나 다른 주먹을 내뺀 동작을 통해 상대와의 호흡을 주고받게 된다. 이후 좀 더 근접거리로 들어서면 손을 이용하여 상대의 팔이나 옷깃을 붙잡아 펼치는 유술기의 형태로 발전하는 것이다. 여기에 다리를 이용하여 공격하는 발차기 형태의 足法이나 脚法이 더해지면 맨몸을 이용한 공방의 기법을 안정화시킬 수 있게 된다.

마지막으로 배우는 것이 ‘劍’ 즉, 무기술이 된다. 자기 신체의 공격력과 방어력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무기라고 하는 연장을 손에 쥐고 공방법을 수련하는 것이다. 손에 쥐고 있는 무기는 신체의 연장선에서 이해해야 한다. 상대와 보다 먼 거리에 겨루기 위해서 창이나 봉과 같은 긴무기를 수련하기도 하고 좀 더 짧은 거리에서 승부를 보기 위하여 도검이나 짧은 단도 같은 근접전형 무기를 연마하게 된다. 이러한 무기술의 바탕은 자신의 신체를 바탕으로 하기에 身, 步, 手와 관련법을 차례로 익히지 않을 경우 사용상의 제약이 따른다. 심지어 자신이 휘두른 무기로 자신이 다치는 자해법으로 나타나기도 한다.<sup>45)</sup>

44) 전통시대 군사무예에서 기본적으로 활용한 步法으로는 進歩, 掣步, 進掣步, 跳步 등 다양한 걸음걸이가 존재한다.

45) 무기의 활용법은 “각 병사들이 휴대하고 있는 器械(兵器)는 동물의 발톱과 이빨,

따라서 권법은 무예를 익히는 기본 순서인 ‘身步手劍’의 근간을 지탱하는 핵심적인 기법이 담겨 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권법은 ‘無拳無勇 職爲亂階’라 하여 용기와 군권을 상징하는 의미로도 활용되었기에 마음을 다스리고 용맹을 키우는 수련으로 인식되었다.<sup>46)</sup> 임란이후 조선 군영에 보급된 권법 역시 군사들의 ‘일반적인 몸’을 ‘무예하는 몸’으로 사고와 육체를 전환시키고자 하는 방법 중 하나로 활용한 것이다. 임란이후 최초로 조선에서 정리된 권법은 『武藝諸譜翻譯續集』의 첫 장에 실렸다. 여기에 실려있는 권법 수련을 통해 얻을 수 있는 핵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바) 권법을 배우는 자는 身法이 활발하면서도 편해야 하며, 手法은 빠르면서도 날카로우야 하며, 腳法은 가벼우면서도 굳건해야 혹 나아가고 혹 물러남에 모름지기 마땅함을 얻을 것이다.<sup>47)</sup>

위의 사료에 알 수 있듯이, 拳法 수련을 통해 몸의 근간이 되는 身法을 익히고, 手法과 腳法을 안정적으로 체득할 수 있었다. 이를 통해 전장에서 활용 가능한 다양한 병장기를 보다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는 기본무예로 인지한 것이다. 『武藝諸譜翻譯續集』에 실린 권법의 연결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사) 과호세-일조편세-순란주세-현각허이세-축천세-축천세-축천세-지당세-포가세-요단편세-칠성권세-요단편세-축천세-탐마세-정란세-도삼세-중사평세-고사평세-요단편세-탐마세-작지룡세-고사평세-요단편세-하삼세-일삼보세-복호세-복호세-요란주세-요단편세-염주세-요단편세-조양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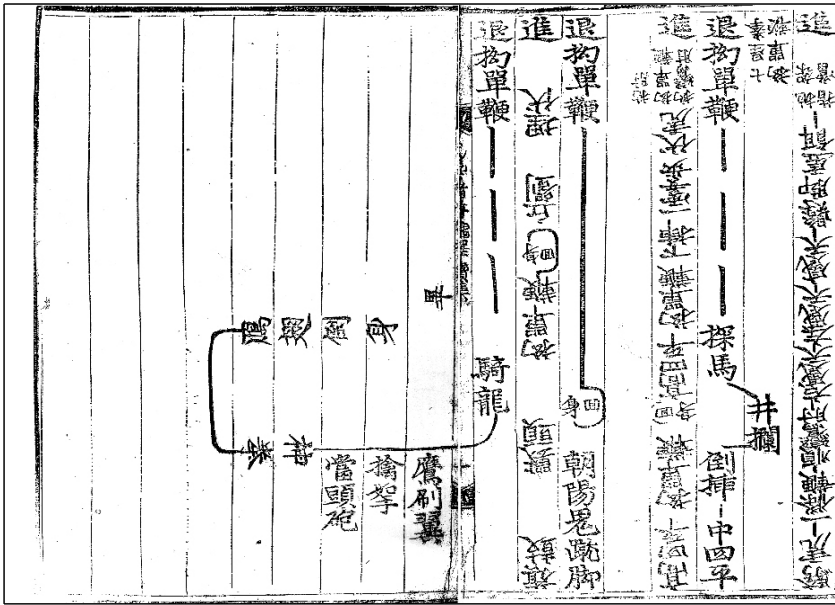
비늘과 깃질을 가지고 있는 것과 같아서 자신에게 맞는 병기를 잘 활용하면 적을 제압할 수 있고, 그렇지 못하면 도리어 적에게 제재를 받게 된다”고 할 정도로 각 군사의 몸에 맞는 병기의 사용을 적극 권장하였다.(『兵學指南演義』營陣正毅 2卷, 選兵.)

46) 『武藝圖譜通志』拳法, “(案) 詩小雅 無拳無勇職爲亂階 注拳力也.”

47) 『武藝諸譜翻譯續集』拳法, “學拳者 身法要活便 手法要捷利 腳法要輕固 或進或退 要得其宜.”

귀축각세-기고세-수두세-요단편세-구유세-매복세-요단편세-축천세-도  
기룡세-응쇄익세-금나세-당두포세-신권세-안시축신세. 48)

위의 사료에서 보면, 전체 46세의 연결형을 방향전환을 이루면서 연속적으로 진행함을 알 수 있다. 그런데 『武藝諸譜翻譯續集』에 실린 자세들은 모두 중국의 병서인 『紀效新書』에서 추출한 것으로 군사 훈련에 보다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재구성한 것이다. 『武藝諸譜翻譯續集』에 실린 권법의 연결그림인 拳法總圖를 보면 <그림 1>과 같다.



<그림 1> 『武藝諸譜翻譯續集』에 실린 拳法總圖

48) 『武藝諸譜翻譯續集』 拳法, “跨虎勢—一條鞭勢—順鷹肘勢—懸脚虛餌勢—蹙天勢—蹙天勢—蹙天勢—指當勢—拋架勢—拗單鞭勢—七星拳勢—拗單鞭勢—蹙天勢—探馬勢—井欄勢—倒插勢—中四平勢—高四平勢—拗單鞭勢—探馬勢—雀地龍勢—高四平勢—拗單鞭勢—拗單鞭勢—下插勢—一插步勢—伏虎勢—伏虎勢—拗鷹肘勢—拗單鞭勢—拈肘勢—拗單鞭勢—朝陽勢—鬼蹴脚勢—旗鼓勢—獸頭勢—拗單鞭勢—丘劉勢—埋伏勢—拗單鞭勢—蹙天勢—倒騎龍勢—鷹刷翼勢—擒拿勢—當頭砲勢—神拳勢—雁翅側身勢.”

권법에 등장하는 여러 자세들은 소위 ‘勢’라고 하여 특정한 손이나 발 혹은 몸이 연속적으로 일으키는 움직임에 말한다. 그래서 병서에서는 ‘勢’에 대하여 “권법에 勢가 있다는 것은 변화하기 때문이다. 횡, 사, 측, 기, 립, 주, 복 모두 장호가 있어서 가히 지킬 수 있고 가히 공격할 수 있다. 그러므로 勢라 한다. 권법에는 정해진 세가 있는데, 실용에는 정해진 세가 없다. 당하여 임기로 그를 활용한다. 변화에는 정해진 세가 없으나 실용에서 세를 잃어버리면 안 된다”<sup>49)</sup>라고 하여 일정한 흐름 혹은 핵심은 있지만, 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변화 가능한 신체의 움직임으로 설명하고 있다.<sup>50)</sup>

이러한 세의 연결을 통해 보다 실전적인 자세의 활용이 가능하고 권법의 실력을 공식적으로 평가할 때 기준을 만들 수 있어서 拳譜는 더욱 효과적으로 사용되었다.<sup>51)</sup> 『武藝諸譜翻譯續集』에 실린 권법의 언해 첫 부분을 보면 다음과 같다.

(아) 주먹으로 치는 보 : 옷을 벗고 동쪽을 향하여 서서 과호세를 취하고 이어서 일조편세를 취하고 곧 두 손으로 위쪽으로 향하여 세 번 휘저어 그리며 세 걸음 나아가 현각하이세를 취하여 오른발로 축천세를 취하고, 또 왼발로 축천세를 취하고 한 걸음 나아가 또 축천세를 취하고 즉시 왼다리로 물러서서 지당세를 취하고 또 오른다리로 왼쪽을 향하여 가로서서 포가세를 취하고 또 왼쪽을 향하여 한 걸음 걸어 요단편세를 취하고 왼손으로 오른팔 팔꿈치를 쳐 칠성권세를 취하라.<sup>52)</sup>

49) 『武藝圖譜通志』 拳法, “(增)拳有勢者所以爲變化也 橫邪側面起立走伏皆有牆戶 可以守可以攻 故謂之勢 拳有定勢 而用無定勢 當其用也 變無定勢 而實不失勢.”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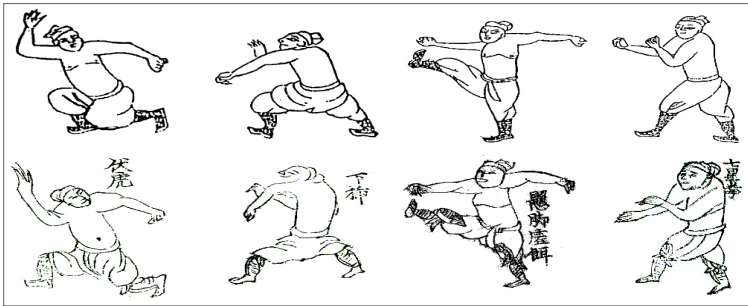
50) 이러한 勢의 의미는 공격할 수도 있고 방어할 수도 있는 움직임의 변화 전체를 말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주먹을 한번 치는 것이 상대를 직접적으로 공격하는 방법일 수도 있으며, 상대의 공격을 주먹지르기를 통해 막을 수도 있다는 움직임의 다양한 활용 가능성을 말하는 것이다. 무기를 들었을 경우에도 똑같은 勢라 할지라도 상대의 목을 수평으로 공격할 수도 있으며, 자세를 낮춰 허리부분을 공격하는 것도 가능한 것이다.

51) 『武藝諸譜翻譯續集』 跋文.

52) 『武藝諸譜翻譯續集』 拳譜 언해, “주머귀로 티는 보 : 옷 벗고 東으로 向하여 서서 跨虎勢를 하고 인하여 一條鞭勢를 하고 곧 두손으로 버키 우호로 向하여 세

위의 사료는 권법보의 첫 부분인 과호세, 일조편세, 현각허이세, 축천세, 지당세, 포가세, 요단편세, 칠성권세를 연결지어 방향과 횡수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다. 그런데 여기에 등장하는 각각의 세는 『紀效新書』에 등장하는 날개의 세를 토착화시켜서 연결지은 것으로 볼 수 있다.<sup>53)</sup> 예를 들면 권법의 첫 자세인 과호세의 경우 『紀效新書』에서는 “발을 움직여서 넓적다리가 가는 것을 상대방이 알지 못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니, 왼쪽과 오른쪽 발뒤꿈치가 한꺼번에 끌고 들어가게 해야 하니, 자칫 실수하기 쉽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武藝諸譜翻譯續集』의 권법보에서는 과호세에 대한 기본 설명 없이 바로 방향과 횡수만을 언급하여 자세를 진행하고 있다. 따라서 『武藝諸譜翻譯續集』에 등장하는 권법보는 『紀效新書』의 날개 세 중 움직임이 편하고 핵심이 된다고 판단한 자세들을 그대로 활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의 <그림 2>는 『紀效新書』와 『武藝諸譜翻譯續集』에 등장하는 몇 가지 세의 그림을 비교한 것이다.



<그림 2> 『紀效新書』와 『武藝諸譜翻譯續集』에 실린 拳法 그림 비교

번 휘저어 그리티며 세 거름 나아 顯脚虛餌勢 흔여 올흔발로 ㄸ니 蹙天勢로 하고 또 왼발로 ㄸ니 蹙天勢를 ㅎ고 ㅎ 거름 나아 또 蹙天勢를 ㅎ고 겨레 윈 다리로 ㄸ니 물러서서 指當勢를 ㅎ고 또 올흔 다리로 ㄸ니 윈녁크로 向ㅎ야 ㄸ러서서 拋架勢를 ㅎ고 또 외녁크로 向ㅎ야 ㅎ 거름 거리 拗單鞭勢를 ㅎ고 인ㅎ야 윈 소노로 올흔풀 궁동이로 ㄸ 七星拳勢를 ㅎ라.”

53) 이미 각 ‘勢’에 대한 인식은 군사들 사이에서도 모두 공유하고 있으니 그 세의 연결과정과 방향을 중심으로 연결된 譜를 설명한 것이다.

〈그림 2〉의 윗줄은 『紀效新書』에 실린 권법 그림이며, 아랫줄은 『武藝譜翻譯續集』의 그림이다. 자세는 伏虎勢, 下插勢, 懸脚虛餌勢, 七星拳勢 등을 비교하였는데, 그림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자세의 모양이 완벽하게 일치함을 알 수 있다.<sup>54)</sup>

이러한 권법에 등장하는 대부분의 자세들은 기본적으로 상대에게 손이나 발 혹은 몸통을 이용해야 직접적으로 타격을 가하거나 상대 신체의 일부를 잡고 꺾는 유술과 같은 형태는 거의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몸의 중심을 빠르게 낮췄다가 일어서거나 혹은 자연스럽게 발을 들어 올리거나 손을 휘두르는 것처럼 신체의 유연성을 극대화 시키는 자세들이 주를 이루는 것을 알 수 있다. 권법이 군사무예 훈련의 기본 종목이 되었기에 조선후기 대표적인 군영인 訓鍊都監이나 壯勇營 소속 군사들의 경우 군영 자체에서 평가하는 시험인 中甸이나 大比較에서 拳法을 가장 많이 시험 본 것을 확인할 수 있다.<sup>55)</sup> 특히 조선후기 창검군 강화를 위한 殺手들의 시험인 中日에서 권법은 핵심 과목을 지정되어 『續大典』에 실릴 정도로 그 위상을 확고히 하였다.<sup>56)</sup>

그러나 이러한 세의 연결은 자칫 단순한 자세의 연결로 흘러 버릴 가능성이 있다. 이런 이유로 1759년에 편찬된 『武藝新譜』에는 甲과 乙이 서로 공격과 방어를 반복하여 好勝心を 키우도록 모두 38습을 맞추는 방식으로 변화하였으며,<sup>57)</sup> 1790년에 편찬된 『武藝圖譜通志』의 권법에도 이러한 세의 연결 뿐만 아니라 두 사람이 몸을 맞대고 수련하는 교전의 방식을 첨가함으로써 권법의 실전성을 확보할 수

54) 중심축을 빠르게 낮췄다가 일어나거나 手法, 腳法의 움직임이 명확하게 드러나는 것을 예를 들었다. 나머지 자세 역시 거의 그림 상으로 일치한다.

55) 정혜은, 「18세기 무예 보급에 대한 새로운 검토」, 『이순신연구논총』 9호, 순천향대학교 이순신연구소, 2007년, 240-244쪽.

56) 『續大典』 兵典, 殺手.

57) 『凌虛關漫稿』 卷7, 藝譜六技演成十八般說, “交戰拳法鞭棍 則各以一夫之鬥力 交鋒相接 明於勢者捷 大抵鞭拳之制 見於毛氏之詩 左氏之史 而皆似無預於大戰之技 如其活動手足 鍊習擊刺 誠有一聲響處 直千金之至妙 戚帥之許以初學入藝之門者 不亦然乎 ... (中略)... 拳法 甲乙進退 自探馬至拈肘 凡三十八合.”

있었다.<sup>58)</sup> 이러한 내용은 다음의 사료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자) 권법으로써 말한다면 척계광의 보에는 반드시 두 상대가 있다. 두 상대란 갑이 탐마세를 지으면 을은 요단편세를 짓고, 갑이 칠성권세를 지으면 을은 기룡세를 취한다는 것 등과 같이 모두 공수 자연지세이며, 오늘의 법칙이 처음 모세를 짓고 다시 모세를 지어 처음부터 끝까지 모여서 일통을 이룬다. 이미 본의를 잃었다가 또한 항차 갑을이 같이 한 자세를 취하여 마치 그림자가 그 형상을 따라 상박하는 것과 같다. 그러나 안시측신세와 구류세 등 몇 자세에 지나지 않아서 끝나버린다. 두 상대가 메고 새로 치고 변화하여 이로부터 거의 유희처럼 차례로 행해진지 이미 오래되었으므로 이로 인하여 구보(『무예제보번역속집』, 『무예신보』)가 되었다. 그러나 식자는 당연히 열 가지 자세를 잃어버렸음을 스스로 알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이 책(『무예도보통지』)에는 그 비결을 증입한다.<sup>59)</sup>

위의 사료에서 언급하듯이, 『武藝圖譜通志』의 권법 역시 이전에 완성된 舊譜의 내용을 충분히 신는 것과 함께 두 상대가 서로 합을 맞춰

58) 『武藝圖譜通志』拳法譜, “兩人各以左右手夾腰雙立 初作探馬勢 右手打開左肩 旋作拗鬻肘勢 左手打開右肩 進前作懸脚虛餌勢 右足蹴右手 左足蹴左手 右足蹴右手 卽作順鬻肘勢 左一廻 左手一打右足 仍作七星拳勢 左右洗作高四平勢 右手左脚前一刺 卽作倒插勢 左右手高舉後顧 回身向後 作一雲步勢 右手夾右腋 仍作拗單鞭勢 跳一步右手打右臀 仍作伏虎勢 進坐右廻起立 又作懸脚虛餌勢 仍作下插勢 左一廻 右手左足一打 卽作當頭砲勢 左手防前 右手遮額 仍作旗鼓勢 左右洗 又作中四平勢 右手左脚後一刺 仍作倒插勢前顧 廻身作倒騎龍勢 左右手開張 作拗單鞭勢進前 仍作埋伏勢一字進坐起立作懸脚虛餌勢 仍作下插勢當頭砲勢 又作旗鼓勢高四平勢倒插勢 卽作一雲步勢拗單鞭勢 卽作五花纏身勢 右手右脚右廻 [兩人對立 作側側身勢跨虎勢 兩手開闔 左右相尋 甲作懸脚虛餌勢 左踢右踢驅遂前進 乙作丘劉勢 左右手遮退 作雁翹側身勢跨虎勢 相廻立 乙卽作懸脚虛餌勢進甲 又作丘劉勢 退兩人卽作雁翹側身勢跨虎勢 相廻立 甲進作伏虎勢 乙作擒拿勢跳越 旋作伏虎勢 甲亦作擒拿勢跳越 兩人卽作拋架勢 左右手打右足背 又作拈肘勢 甲以右手攬乙左肩 乙以右手從甲右腋下 絞過甲項攬甲左肩 各以背後勾左手 甲負乙橫舉倒擲之 乙作紡車旋震然下地立 乙又負甲如前法畢”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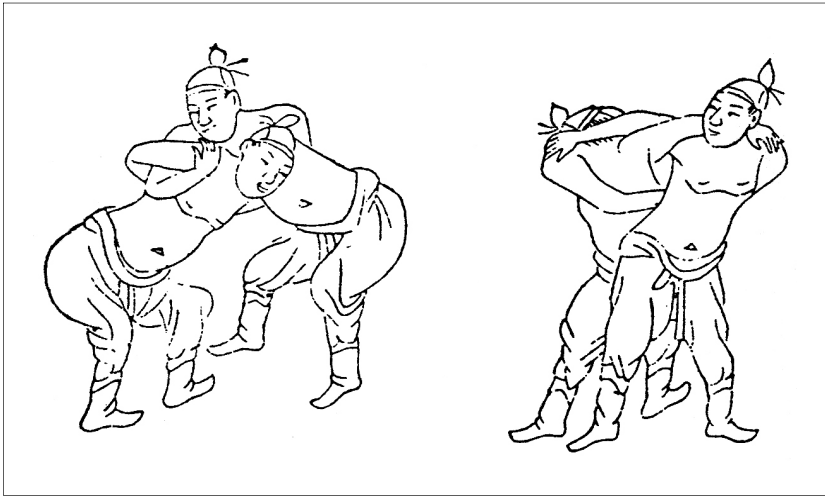
59) 『武藝圖譜通志』拳法, (案) “卽以拳法言之威譜必兩 兩相對如甲作探馬 乙作拗單鞭 甲作七星 乙作騎龍之類皆攻守自然之勢 而今法則初作某勢再作某勢 從頭至尾湊成一通 已失本意 又況甲乙同作一勢 如影隨形其相搏也 不過雁翹丘劉數勢而終之兩相鬻數(眷切雙生子)負相撲 而起此殆近戲第其行之既久仍舊譜焉 識者當自知之其十勢逸於今本 故增入並錄其訣.”

권법을 진행하는 교전의 양식을 더해 실전성을 더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보다 직접적으로 손과 발을 사용하여 상대의 특정 부위를 공격하는 자세들이 추가되었다. 『武藝圖譜通志』에서 새롭게 추가된 자세는 懶扎衣, 金雞獨立, 井欄四平, 鬼蹴脚, 指當勢, 獸頭勢, 神拳, 一條鞭, 雀地龍, 朝陽手 등 모두 10가지 勢로 발로 정강이나 무릎을 공격하거나 팔꿈치로 심장을 타격하는 등 파괴력을 증폭시키는 움직임이 더해졌다.<sup>60)</sup>

이러한 과정을 통해 『武藝圖譜通志』의 권법은 좀 더 조선군의 현실에 맞게 토착화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특히 권법의 마지막에는 단순한 타격기를 넘어서 상대와 서로 붙잡고 관절 등을 직접적으로 공격하는 유술기의 형태까지 발전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sup>61)</sup> 다음의 <그림 3>은 이러한 유술기의 모습을 살필 수 있다.

60) 『武藝圖譜通志』 拳法, (增) “○懶扎衣出門架子 變下勢震步單鞭 對敵若無膽向先空自眼明手便 ○金雞獨立 顛起裝腿 橫拳相兼 搶背臥牛 雙倒遭著 叫苦連天 ○井欄四平 直進剪膝 踢膝當頭 滾穿劈靠抹一駒 鐵樣將軍也走 ○鬼蹴脚 搶人先著 補前掃轉 上紅拳背 弓頭披揭 起穿心肘 靠妙難傳 ○指當勢是箇丁法 他難進我好向前 踢膝躡滾上面 急回步顛短紅拳 ○獸頭勢如牌挨進 凭快脚 遇我慌忙 低驚高取 他難防接 短披紅衝上 ○神拳當面插下 進步火燄攢心 遇巧就拿就跌 舉手不得留情 ○一條鞭 橫直披砍兩進腿當面傷人 不怕他力粗膽大 我巧好打通神 ○雀地龍下盤腿法 前揭起後進紅拳 他退我雖顛補衝來 但當休延 ○朝陽手偏身防腿 無縫鎖逼退豪英 倒陳勢彈他一脚 好教師也喪聲名.”

61) 이러한 유술기의 모습은 『武藝圖譜通志』의 마지막 교전 부분에 등장하는데, 이것은 전통적인 씨름의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이 높다.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씨름은 角觚나 角力이라 불리는 전통 몸문화의 일부분으로 살바의 위치에 따라 왼씨름과 오른씨름으로 구분되고, 살바대신 허리띠를 붙잡고 하는 띠씨름 혹은 통씨름의 영향을 받은 것이다. 씨름에 대한 연구는 다음의 연구를 참조한다. 김선풍, 『韓國 씨름의 歷史와 祭儀』, 『중앙민속학 5』, 중앙대학교 한국문화유산연구소, 1993; 김종교, 『한국 씨름의 체육사적 의미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9; 민상근, 『씨름의 원류와 문화적 특성에 관한 연구』, 충북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0.



〈그림 3〉『武藝圖譜通志』에 실린 拳法 중 유술기 관련 자세

그러나 『武藝圖譜通志』에서도 여전히 그 핵심 기법은 강력한 타격력을 얻는 것보다는 수족을 원활케 하기 위한 일종의 도수체조의 성격이 주를 이뤘으리라 판단된다. 대표적으로 양손으로 무기를 활용할 때 바탕이 되는 손과 공격의 방향을 정해주는 손의 위치와 형태를 소위 ‘陰陽手’라 부르는데, 이것은 무기술을 익히는 가장 기본적인 훈련에 해당한다.<sup>62)</sup> 권법은 음양수의 기본을 익히는 가장 효과적인 훈련 법이기도 했다.

또한 권법이라는 원래의 의미에서처럼 발기술보다는 손기술 중심의 동작이 주로 많았으며, 이는 창이나 도검등과 같은 무기술 연마시 권법의 자세를 그대로 활용 가능했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권법의 자세 중 高四平勢이나 中四平勢의 경우는 주먹을 이용하여 수평으로 찌르듯이 활용하는 자세를 말하는데,<sup>63)</sup> 이러한 움직임이 長槍의 찌르기

62) 『武藝圖譜通志』技藝質疑, “又問所謂陰陽手何謂也 答曰凡器械以手向下執者 謂之陰向上執者 謂之陽陽以提起陰以打去殺去 皆自然如此.”

63) 『武藝圖譜通志』에서 권법의 고사평의 경우는 “右手左脚 前一刺”라고 하여 오른손과 왼다리로 앞을 한 번 찌른다고 하였다. 중사평의 경우도 역시 “右手左脚

위치 중 上平, 中平, 下平 등으로 그대로 적용이 가능하다. 장창의 指南針勢의 경우는 上平으로 볼 수 있으며, 十面埋伏勢의 경우는 下平 鎗法 수련과 연관지어 훈련할 수 있다.<sup>64)</sup> 또한 권법에서 자세를 앉듯이 완전히 낮춰 손이나 발로 적을 공격하는 형태인 埋伏勢나 伏虎勢의 경우는 籐牌의 埋伏勢나 低平勢의 신체 움직임과 거의 유사하게 나타난다.<sup>65)</sup> 이러한 권법을 통한 무기활용 능력 강화는 관무재에서도 拳法手라는 殺手시험 과목에 권법뿐만 아니라 鞭棍·挾刀·棍棒·竹長槍 등을 함께 시험을 본 배경이기도 했다.<sup>66)</sup> 따라서 조선후기 권법의 보급은 명나라에서 보급된 다양한 단병접전용 무기술의 활용범위를 보다 넓게 하였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다리의 경우는 足法이라 하여 상대를 적극적으로 공격하는 것에 중심을 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무기를 안정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일종의 步法の 형태를 수련하기 위해 빠른 중심이동이나 일어서고 앉기를 반복하는 형태로 수련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런 이유로 懸脚虛餌勢를 비롯한 발기술을 핵심적으로 사용한 ‘勢’에서도 허리 이상 발을 들지 않거나 직접적인 타격을 주된 목표로 삼지 않은 것이다.<sup>67)</sup>

마지막으로 조선후기 권법 정착 과정의 가장 독특한 특징은 새로운

後一刺”라고 하여 한번 찌르듯이 손을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64) 『紀效新書』長槍, “指南針勢 乃上平鎗法 其類用近手中平 而着數不離六合之變 有心演悟 二十四勢之中 可破其半.”; “十面埋伏勢 乃下平鎗法 門戶緊於上平 機巧不亞中式 精於此者 諸勢可降.”

65) 『紀效新書』拳法, “埋伏勢 窩弓大虎 犯圈套寸步難移 就機連發幾腿 他受打必定昏危.”; “伏虎勢 側身弄腿 但來湊我前撐 着他立站不穩 後掃一跌分明.”

66) 『萬機要覽』軍政篇2, 附 龍虎營 試藝 觀武才.

67) 실제 전투에 활용한 발차기의 경우는 그 높이가 허리 이상 올라가는 것은 상당한 위험을 만드는 일이다. 허리 이상 발이 올라갈 경우 상대에게 발을 붙잡힐 가능성이 높을뿐더러, 발을 잡혔을 경우 직접적인 대응이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전투에서 활용하는 발차기는 허리 이하의 하단에 집중되어 있고, 주먹을 사용하는 손기술은 상단에 집중되어 있다. 따라서 조선후기 보급된 拳法の 경우는 주로 무기를 활용할 수 있도록 손기술을 중심으로 자리잡혀 있으며, 발과 다리의 경우는 보법과 신체균형을 맞추는 것에 중심을 두고 있다.

무예에 대한 정착과 변화를 국가라는 공적체제를 통하여 수용하고 보급시켰다는 것이다.<sup>68)</sup> 특히 민간이나 私兵들이 아닌 公兵의 개념인 군영 소속의 군사들에게 보급시키기 위하여 훈련도감을 비롯한 핵심 군영에서 권법 관련 병서를 인쇄 및 보급했다는 것은 주변국인 중국, 일본과는 사뭇 다른 형태의 정착 방식으로 판단된다. 중국과 일본의 경우 상당부분 무예와 관련한 책의 편찬이나 수련전승 방식의 경우 지극히 사적인 방식으로 가문이나 문중 혹은 개인에 의해 개별적으로 이뤄진 것이 대부분이다.

대표적으로 권법과 관련한 중국의 병서인 『紀效新書』, 『武備志』의 경우도 국가가 주도했다기 보다는 개인이 주관한 성격이 강하다. 그리고 일본의 경우도 핵심적인 창검술 등이 여러 무예 문파를 통해 사적인 전승이 이뤄졌다. 반면 조선은 외래 무예의 공식적인 보급을 위해 국가의 군사조직이라는 공간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문화적 확산 속도를 최대한 높일 수 있었으며, 보다 실용적이며 전투적인 움직임으로 권법이 보급 및 정착될 수 있었다.

#### 4. 맺음말

조선후기 군영에 보급된 권법은 민간에서 수련되었던 수박이나 택견과는 다른 형태로 중국의 맨손무예가 보급되었다. 이는 임진왜란이라는 특수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명의 남병이 사용했던 당파나 낭선 등과 같은 독특한 무기들을 활용하면서 보다 기초적인 신체훈련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무예 역시 문화적 특성으로 인해 조선군에

68) 심승구, 「韓國 武藝의 歷史와 特性 : 徒手武藝를 中心으로」, 『군사』 43호,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01, 293-295쪽.

쉽게 전파하기 어려웠다. 이를 위하여 임란 중 새롭게 편성한 훈련도감의 아동대를 비롯한 특수 직역에 권법을 실험적으로 보급하였으며, 자연스럽게 놀이문화의 일환으로 권법이 전파되는 방식도 함께 고려되었다.

임란 이후에는 『武藝諸譜翻譯續集』이나 『拳譜』 등 병서를 통하여 보다 체계적으로 정착시키려 하였다. 당시에 무예에 대한 인식은 음식 문화 중 중국의 젓가락 문화나 조선의 숟가락 문화와 같이 생활양식의 일부로 받아드려졌으며, 문화적으로 권법을 안착시키기 위하여 다양한 노력이 진행되었다. 이는 당시 전해진 권법의 형태가 우리의 전통적인 몸짓과는 다른 형태였기에 문화적 거부감이 생길 가능성이 많았기 때문이다. 특히 권법을 바탕으로 다양한 명군의 무기술을 익혀야 하는 상황에서 권법의 문화적 보급은 국가의 안위와 직결되는 문제였다. 따라서 무예를 실기적 기술체계나 군사 전술사적 입장에서 분석하는 것뿐만 아니라 문화사적 관점으로 접근하는 것도 무예의 본질과 전파과정을 이해하는데 상당한 의미를 갖는다고 하겠다.

본 글에서는 조선군에 권법이 정착되는 과정 중 그 독특한 특성에 대하여 몇 가지를 살펴보았다. 이를 간단하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조선후기 군영에 보급된 권법은 중국의 맨손무예인 권법을 그대로 연결지어 만들어낸 譜의 형태로 보급되었다. 이는 기효신서를 비롯한 당대 권법 수련방식과는 다른 형태로 조선군의 권법 시험과 평가에 활용할 수 있도록 토착화의 가능성을 만들어주는 배경이 되었다.

둘째, 조선군이 권법을 군사들에게 익히게 한 가장 중요한 원인은 다른 병기를 보다 원활하게 사용하고 보편적인 신체훈련 방법의 기준으로 삼는 것에 있었다. 예를 들면 권법에서 주먹을 지르는 동작을 높이에 따라 上平, 中平, 下平 등으로 나눌 때 이것이 槍法에서 동일하게 활용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권법에서 자세를 앉듯이 완전히 낮춰 손이나 발로 적을 공격하는 형태인 埋伏勢나 伏虎勢의

경우는 籐牌의 埋伏勢나 低平勢의 신체 움직임과 거의 유사하게 나타난다. 특히 狼筈이나 鎗鉞와 같은 특수 무기의 경우는 그 무게와 길이로 인해 기본적인 체력 훈련 및 유연성 강화가 반드시 필요했기에 권법은 군사들의 일반적인 ‘몸’을 무예하는 ‘몸’으로 전환시키는데 가장 효과적인 수련방법이었다. 이러한 이유로 권법은 무기의 활용을 원활케 하기 위해 손기술을 중심으로 발전했으며, 발과 다리의 경우는 보법의 활용이나 신체의 중심을 잡기 위한 특성을 보인다.

셋째, 투로형태에서 두 사람이 서로 몸과 몸을 맞대고 합을 맞춰 연습하는 교전의 형태로 발전하면서 보다 실전적인 움직임으로 변화해 갔다. 특히 단순한 타격기뿐만 아니라 근접거리에서 상대의 관절을 꺾거나 제압하는 유술기의 형태까지 추가되면서 권법의 활용성은 보다 확대되었다. 이 과정에서 씨름이나 角力을 비롯한 전통적인 유술형 무예가 권법에 영향을 끼쳤을 것이라 판단된다. 또한 이러한 교전 능력의 강화를 통해 군사들의 호승심을 키우는 사기진작의 부분을 충족시킬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조선후기 권법 정착의 가장 독특한 특성은 국가에서 주도적으로 권법을 군사들을 중심으로 보급시켰다는 것이다. 이는 중국이나 일본과 같은 다른 나라에서는 볼 수 없는 조선만의 독특한 무예전파 방식이자 정착 과정이었다. 이를 통해 조선의 권법은 보다 빠르게 군사들을 통해 안착할 수 있었으며, 觀武才나 試取 등 각종 군사시험의 과목으로 지정되어 안정적으로 수련될 수 있었다.

조선후기 정착된 권법은 군영을 중심으로 수련되었지만, 이후 수박이나 택견과 같은 민간에서 수련되었던 맨손무예와 다양한 문화적 접합을 진행하기도 하였다. 그러한 연장선에서 고민해봐야 하는 것이 오늘날 태권도와와의 관계이다. 현재 태권도에 대한 대부분의 관점은 전통무예라는 입장 하에 지나치게 국수적으로 과거의 몸문화 흐름과 결부시키려는 움직임이 다분하다.

그러나 본 글에서도 밝혔듯이 조선후기 정착된 권법의 경우는 비록 토착화의 과정을 거쳤지만, 초기에는 중국의 맨손무예 형태가 그대로 전이된 형태였다. 또한 초기 태권도의 형성과정 중 가라테의 기술을 차용한 것을 역지로 왜곡하거나 등한시해야 하는 것도 아니다. 오히려 그것에 가치판단을 내리고 무조건 전통적인 것만 의미가 있다는 전통중심주의적 발상이 태권도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발전을 저해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비록 중국의 권법과 일본의 가라테가 태권도 탄생의 밑거름이 되었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문화의 속성이고 발전과정 이기에 전통성 논쟁의 기준이 될 수는 없는 것이다.

첨언하자면, 우리의 전통에 대한 과도한 집착은 ‘식민의 기억’을 떨쳐내기 위한 콤플렉스와 같은 형태로 자리잡혀 있다. 우리의 전통무예에 대한 관심 역시 이러한 한계 속에서 아직까지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는 우리의 근대가 일제강점기라는 시기적 한계 속에서 무예 문화 역시 일제라는 국가의 통제와 관리를 통해 왜곡되어 나타났기 때문이다. 특히 일제가 학교라는 근대적 교육기관을 통해 예비 전력으로서 개인의 몸에 대해 집중관리를 진행했던 핵심에는 무예가 있었다.

대표적으로 일제는 ‘五武道’라 하여 전투에 실제로 활용가능 한 무예인 柔道, 劍道, 弓道, 銃劍術(銃劍道), 射擊(射擊道) 등 다섯가지 무예를 학교를 통해 강제적으로 훈련시킴으로써 조선인의 몸을 강제로 군사화시켰다. 위에서 언급한 다섯 가지 무예 훈련에는 내선일체와 황국신민화에 대한 정신적인 훈육이 포함되어 있어서 당시 일제의 ‘군국주의적 武道정신’을 조선인의 몸에 강제적으로 주입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구체적으로 일제 강점시기 근대에 탄생한 무예훈련은 일본식 ‘武士道’ 정신을 익혀 심신을 단련하고 국가에 헌신적으로 봉사할 수 있는 황국신민으로서의 신념을 주입하기 위함이었다. 여기에 근대 스포츠의 형태로 무예수련의 의미를 심신수양이나 자기완성이라는 철학적 가치가 더해지면서 더욱 빠르게 확산되었다.

이 과정에서 조선인의 몸에 대한 규격화를 위해 지속적인 신체검사와 함께 체력측정을 통하여 예비군사 자원으로 관리하는 것 역시 무예 문화의 왜곡현상을 낳게 되었다. 각각의 개인의 몸에 신장과 몸무게를 중심으로 등급을 나누고 체력에 따라 우열을 가리는 지극히 자본주의적 몸 인식으로의 전환은 해방 이후에도 왜곡된 무예 문화의 바탕이 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무예에 대한 인식도 ‘주체적 수용’인지 ‘강제적 수용’인지에 따라 그 의미를 명확히 구분하고 수련생들에게 본질에 대한 고민을 던지며 수련을 지도할 때 비로소 균형 잡힌 무예 문화가 성장 가능할 것이다.

[원고투고일: 2016.1.10, 심사수정일: 2016.9.5, 게재확정일: 2016.9.10.]

주제어 : 권법, 수박, 택견, 군사무예, 단병접전술, 태권도, 『武藝諸譜』, 『武藝諸譜翻譯續集』, 『武藝圖譜通志』 무예사

<ABSTRACT>

The Study on the process of the establishment of unarmed fighting skill(拳法) from the cultural aspects as military martial art in the late of Joseon dynasty

Choi, Hyeong-Guk

This thesis is to examine the implementation process of unarmed fighting skill(拳法) and its change of training in the late of Joseon dynasty with cultural and historical point of view. It may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ly, diffused unarmed fighting skill to military camp in the late of Joseon dynasty was come into widely use as 'Bo(譜)' format which was made by connecting Chinese unarmed fighting skill. This format had become a background unlike unarmed fighting skills' training method of the time and used for unarmed fighting skill test and evaluation for Joseon's soldiers. Secondly, the most important reason why Joseon soldiers learnt unarmed fighting skill was to use other weapons smoothly and set the common standard for body training. For instance, the height of punch from unarmed fighting skill was divided into 3 levels (上平, 中平, 下平) and the fact was confirmed that this method was used for spear fighting skill as well. Especially, weapons such as 'Nang-sun(狼筈)' or 'Dang-pa(鎗鉞)' were required with basic strength and flexibility of physical body because of its length and weight and unarmed fighting skill was most effective way to train soldiers for making fitted body to do martial art. Thirdly, It had improved from the form of 'Bo(譜)' to face to face battle form and body movements also became realistic. The usage of unarmed fighting skill had enlarged with not only simple blow skill but also newly added 'Jujitsu' skill to attack enemy in close distance. Last, the most distinctive point for settlement process of unarmed fighting skill in late Joseon dynasty was that this skill was spread focusing on soldiers. It was Joseon's typical

process unlike China or Japan to settle and spread martial art skill. Joseon's unarmed fighting skill had settled through this way and stably trained as a subject for national military service examination.

Key words : Unarmed fighting skill(拳法), Subak(手搏), Taekkyeon(택견), Military martial art, Taekwondo(跆拳道), 『Muyejaebo(武藝諸譜)』, 『Muyejaebobunyuksokjib(武藝諸譜翻譯續集)』, 『Muyedobotongji(武藝圖譜通志)』, History of Martial art